2. 은행의 인수·합병 활성화를 위한 보완 과제

○ (인수·합병 적극 추진의 배경) 기존 은행권의 과당 경쟁 해소, 은행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,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임

○ (노정된 문제점) 단기적 실적에 의해 우량,불량 은행을 판정하는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, 외형적 대형화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이 다소 경시되고 있음

○ (활성화 방향) 건전성 감독 강화를 전제로 소유구조 다양화,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을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,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서 신규 금융기관 설립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함

□ 정부의 은행간 인수·합병 적극 추진

- (목적) 국내 은행들의 과당경쟁 해소, 은행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,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

· 국내 은행들의 과다(over-bank)에 따른 과잉 경쟁을 해소하는 동시에 분야별 특화 은행을 육성하고, 부실 은행에 대한 자산·부채 인수(P&A)나 흡수 합병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

· 또한, 대형화와 적극적 외자 유치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진금융기법의 습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

- (현황) 국내 은행들은 외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, 동시에 검토가능한 합병 대상 물색 및 사전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 중임

<은행별 구조조정 및 합병 추진 내용>

은행	구조조정 진행 현황
신 한	2억달러 DR발행 추진; 합병을 통한 소매금융 및 중소기업지원 특화 추구
국 민	2억달러이상 합작선 모색; 소매 금융 특화
외 환	코메르츠방크와 합작(2억 5000만 달러); 우량 후발은행 인수 검토, 한외종금과 합작 추진
하 나	IFC로부터 1억5000만달러 차입 성사; IFC의 중자 후 추가 합병 모색 가능성
보 람	포르투갈은행과 뮤추얼펀드 설립 합의, 2억 달러 외자유치 추진; 소형 은행과 합병 추구
조 흥	2억 달러 합작 추진; 소매금융 특화 추구
상 업	모건스탠리 통해 2억 달러 합작선 모색, 국내외 자산 매각; 소매, 중소기업 특화
한 일	프라이스 워터하우스 통해 합작선 모색, 해외법인 매각 추진중; 충청은행과 합병후 대기업특화 선도은행 추구

주: 순서대로 1) 외자유치, 2) 합병을 통한 특화 방향 등을 적시, 자료: 매일경제신문

□ 노정된 문제점

- 우량, 불량 은행의 최종 판정 방식에 한계가 있음

· 우량과 불량 은행의 판정이 97년말이나 98년중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 방식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음. 현재 우량, 불량 은행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부실해진 상황임

- 인수·합병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위기임

·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형적 대형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함. 하지만, 경영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도 매우 절실한 구조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시되는 분위기임

- 인수·합병의 확정전 노출된 정보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음

· 인수·합병이 갖고 있는 속성상 의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유포되는 관련 정보의 유통이 자칫 불공정 상행위가 될 수 있음

· 실제 짝짓기 소문이 나돈 우량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남

□ 국내 은행간 인수·합병의 활성화 방안

- 부실 차단벽의 설치,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소유구조의 규제 철폐, 신규 진입의 활성화 등의 포괄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

·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건전성 감독 규제의 강화와 함께 각종 부실을 차단하는 방화벽의 설치를 전제로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소유구조의 제한 등을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음

· 또한 대대적인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 금융기관 설립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

- 합병 은행들은 인수·합병을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, 정부는 철저한 상업성 보장을 꾀해야 할 것임

· 미국의 은행들이 철저한 상업성에 입각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서 인수·합병을 추구하였음

· 한국의 은행들도 책임 소재가 분명한 가운데 인수·합병의 실익을 당사자간에

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

· 이번 성업공사에 의해 인수되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은행의 사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

<주요국 은행들의 합병 요인>

국 가	합병의 주요 요인	합병의 동기
미 국	-80년대이후 규제 완화 -은행산업의 기술혁신 -은행의 유동성 증가 -경영위험 분산의 필요성 증대	-경영 합리화 -대형화 -업무 다각화 -지역적인 영업기반의 확충
유 럽	-EU 은행시장의 통합 -과밀한 은행산업구조 및 선도은행의 부재 등의 개선 필요 -은행산업의 부실화 -겸업화의 진전	-국가간,이업종간 영업기반 확충 -금융개방에 따른 방어적 합병 -유럽시장선점을 위한 합병 -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구제합병
일 본	-고도성장기의 규모 확대 추구 -저성장기의 금융 국제화, 자유화 및 업무 영역 확대 개편 -경쟁심화, 대기업의 은행이탈 가속화	-대형화 -업무 다각화

자료: 한국산업은행, 「주요국 은행의 M&A 사례와 결과 분석」, 1996.11.

- 인수·합병의 성패는 끊임없는 경영 혁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

· 인수·합병 그 자체가 궁극적인 성과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지는 못함

· 따라서, 외형적인 인수·합병이 성사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, 궁극적으로 핵심 역량에 경쟁력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혁신 노력이 요구됨

· 합병에 따른 단기간의 대규모 인원 감축보다는 수익 기반이 있는 특화 업무를 지속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임

- 대외 개방이 완료된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금융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

· 미국 은행산업은 월스트리트라는 세계적 증권 중심가를 토양으로 기업 상장, 증권 발행 등 모든 기업의 비지니스 활동에서 유발되는 금융서비스를 사업 기회로 삼았으며, 미국 은행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수·합병을 활용하였음

(임진국 *jklim@hri.co.kr* ☎724-4018)